

41. 남의 도움 받기를 싫어하다.



도산서당 때의 일이다.

내 스승님은 당대 최고의 학자라 해도 부족한 퇴계 선생 아니신가.



수많은 제자를 거느린 인기 선생이면서도 생활은 여전히 검소했다.



산책하실 때는 늘 침으로 삼은 신에 명아주 지팡이!!

너무 빈티가 나시잖아.



제자로서 벤츠나 에쿠우스는 못 태워 드려도 말이야.



